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0년도 제2호

2019년 스리랑카 부활대축일 테러로 인하여
순교자들의 피가 묻은 부활하신 예수상

“누군가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 증인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의 성인들**이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7년 4월 22일 강론 중에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피 흘리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이 사랑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 picture alliance / AP Photo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는 데 순교자들이 중요한 토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순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교가 요구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박해가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전달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은 일입니다. 저희 ACN 활동에 신의를 갖고 함께해 주시며 자비로운 후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저는 우리도 모두 순교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세속적인 주변 환경 속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거나 심지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때도 항상 예수님과 교회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순교자’는 자주 등장하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살폭탄 공격들로 인해 이 개념이 시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테러로 인해 이 개념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왜곡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순교’의 내용은 아주 다른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순교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그 누구도 절대로 죽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삶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내적 자유를 선물하는지 또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하느님을 빼앗으려 했던 세상의 권력 앞에서, 또는 증오나 어떤 사악함 앞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세상의 구원에 기여할 것이라는 굳센 믿음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교회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 21세기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바로 현시대에 우리에게서 증오와 복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영웅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영웅적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을 받아들이며 매일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나타납니다. 여러 작은 희생, 자기 극복,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하나하나의 결정들과 함께 우리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사랑할 용기와 힘이 자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가장 고귀한 희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

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피 흘리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이 사랑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2005년 3월 2일에 피살된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사바즈 바티 장관은 이런 영웅적 사랑의 감동적인 한 예를 보여 줍니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며 영적으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투쟁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고위직과 공직을 주겠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는 명예도 권세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발치에 한 자리를 원할 뿐입니다. 나의 삶, 나의 성격,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제 마음속 소망이 너무도 커서, 예수님께서서 나의 생명의 희생을 받아들이신다면 나는 파키스탄의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그것을 영예로 느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ACN 사순·부활 캠페인 ‘현대 순교자와 신앙의 증거자들’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하느님 위업의 조용한 증인으로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용기와 축복을 선물합니다. 이들이 투쟁 속에 홀로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도 사랑을 증명해 보입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알타히라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십자가의 길 제3처(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에서 이렇게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넘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넘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에 기대지 않으시며, 천사들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2014년 8월, **이라크**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 도시였던 카라코시가 IS(다에시)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떤 권력 집단도 그리스도인을 돕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던 사람들은 살해당하거나 노예가 되었고 건물과 집, 교회 11곳과 부속 건물 70채가 불탔으며 모든 종교적 상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라크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교 교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께 봉헌된 알타히라 대성당 역시 모욕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성당의 큰 마당은 IS의 사격 연습장이 되었습니다. 2년 뒤 테러리스트들이 쫓겨나자 카라코시 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

지 그리스도인 절반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후의 덕분에 많은 집을 보수하거나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불에 타고 곳곳이 뒤흔어진 알타히라 대성당에서의 미사

알타히라는 다시 과거의 영광 속에 일어설 것입니다. 이 도시의 상징적 가치는 카라코시를 훨씬 넘어섭니다. 많은 것이 파괴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사를 드리기 위해 불탄 폐허에 모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묵상의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둬 넘어지심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한 치유와 구원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의 힘입니다. ACN은 올해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알레포에서의 사랑의 실천

“베로니카의 수건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구세주께서는 모든 사랑의 실천에 당신의 모습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십자가의 길 제6처(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 묵상 중



예수회 신부들의 이웃 메리, 메리의 형제 시각장애인 사르키스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이는 **시리아** 북부 대도시 알레포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실천입니다. 알레포의 예수회 센터 ‘성 바르탄’의 잔해로부터 예수회 사제 사미 할락 신부는 다시 평화의 중심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곳은 갈등의 최전선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일부는 청소년 그룹이 공부하며 놀고 숙박할 수 있도록 수리가 가능합니다. 정원 일부는,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쉴 수 있고 빵을 받을 수 있는 사각형의 작은 공원으로 재단장할 수 있습니다. 알레포의 집들은 폭탄으로 파괴되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더위를 피할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사람들에게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의 재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레포의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아야 하며 또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청소년, 대부분 그리스도교 신자인 이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베로니카의 수건처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ACN은 성 바르탄 예수회 센터에 약 390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곳에 개축되는 공간과 작은 평화의 공원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다

저스티 키엔테가 주교와 사제 서품 후보자들

“고통받는 사람, 박해당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 그의 괴로움을 함께 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십자가의 길 제5처(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 묵상 중

부르키나파소에서 우리는 신학생 16명과 그 가족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신학생들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말리와 니제르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살인, 방화, 약탈을 저지르며 주민들을 내쫓은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을을 떠나 피난한 것처럼 부르키나파소 북부 와이구야 교구에 살던 이들 가족도 피난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도시로 피난을 떠나 학교와 지역 강당 등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족들이 신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입니다. 교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형편

이 되지 못합니다. 당사자인 16명의 신학생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ACN은 신학생 가족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로 약 104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신학생도 돕는 것이 되었습니다.

와이구야 교구에는 총 61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13만 명의 교구 신자들이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자신들을 필요로 할 것을 압니다. 신학생 몇 명은 다가오는 7월에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신학생 61명의 교육을 위한 ACN 지원금 약 3900만 원이 오늘처럼 값진 적이 없습니다. 교구는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십자가의 길 제5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이들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일이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다른 이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이 다시 깨어나도록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주님께서 넘어지십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십자가의 길 제7처(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묵상 중



파괴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일러리 난민 다첼렘 주교

나이지리아 북동쪽 바우치 교구에서는 2018년 성탄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 6개의 그리스도교 교회를 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당시 피난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폐허 속으로 말입니다. 치안 상태는 진정되었지만, 성당은 여전히 파괴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복구해야 합니다. 무더위와 비로 인하여 야외에서 미사를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붕과 벽이 간절합니다. 바우치 교구에는 약 7만 명의 신자가 있으며 사제 51명, 수도자 18명, 사제 서품 후보자 25명과 교리교사 96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는 풍부하지만, 그 외에는 너무도 가난한 교구입니다. 교구장인 힐러리 다첼렘 주교는 ACN의 지원을 요청하며 말합니다. “이 복구공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합당한 전례 공간을 갖게 될 것이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ACN은 우선 첫 성당 재건을 위해 약 247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소서.”

죽음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제2차(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악도, 고통과 죽음도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삶을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증오와 죽음의 도구였던 십자가를 사랑과 생명의 표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순교자들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의 청년 아카시 바시르는 폭탄 조끼를 입은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자신의 본당인 성 요한 성당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것을, 주일 미사에 참례 중인 2천 명의 신자들과 이 자살 폭탄 테러범과 사이에 오직 자신의 생명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시르는 테러범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아카시의 마지막 말이었고, 테러범은 즉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5년 전 사순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라호르대교구 청년들에게 아카시 바시르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카시와 같은 성당 경비 봉사를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아카시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 다른 교구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공격을 하고 신성모독법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을 임의로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교회에 봉사할 수 있어 기뻐합니다. 사제직과 봉헌 생활로 소명을 받는 숫자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주교회의 의장인 조셉 아샤드 주교는 말합니다. 그가 교구장으로 재임 중인 이슬라마바드 라왈핀디 교구만 해도 30명 넘는 신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이 뿌린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는 젊습니다. 전체 미사 참례자 중 대다수가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성인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교회는 2020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교육이 큰 도전 과제입니다. 아카시 바시르는 살레시오회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소수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 어린이와 청소년 다수에게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그저 꿈일 뿐입니다. 학교의 수도 적고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이에 파이살라바드 교구는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 사회·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사이버 폭력, 소셜 네트워크 전반과 이슬람과의 관계도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주말 강좌, 여름 캠프와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은 인터넷 내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자신의 신앙과 무슬림 이웃의 신앙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미덕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ACN은 이 프로그램에 약 93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프로그램 지도 신부인 칼리드 무크타르 신부는 말합니다. 아카시 바시르도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유산, 즉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카시 바시르



사회·종교적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소녀들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적대 속에서도 하느님의 얼굴은 드러납니다

가톨릭 교리의 본질을 희석시켜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박해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구소련이 이 방법을 사용했고,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요구했던 것과 같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좌익 정권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정권은 이를 위해 뉴에이지 운동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흥-유사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것과는 반대로, 여기에서는 비인격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믿음이 보편적인 종교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 유사 종교는 그리스도교적인 것처럼 위장된 요소들을 가지고 토착 주민과 그들의 전통에 친근함을 드러내며, 국가가 조종하는 미디어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를 위하여 공격적인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리의 전파에 대처하기 위해 마타갈파 교구는 올해 교리교사와 사목 협력자,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 출신의 평신도 등 250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12주 동안 그들은 로마에서 보낸 교리서와 설명을 근거로 유사 종교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마타갈파 교구장 폴란도 호세 알바레스 라고스 주교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고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주적인 하느님에게 기도합니까? 다신교적인 이런 풍조가 경박한 문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교의 논거들을 단단히 갖춘 다음,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이 참되게 가톨릭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ACN은 이 교육 프로그램에 약 106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쿠바에서는 교회가 종교적인 글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주교들은 공공장소와 사람들의 집에 다다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실용성과 선을 결합한 것인데, 그리스도교 사진과 교리 텍스트가 들어 있어도 달력은 배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중점이 청년 사목에 있어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청년들이 달력의 중앙에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의 글귀들이 가장자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달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데, 그중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관공서에서도 이 달력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심 주제가 가정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십계명이나 사도신경, 또는 교회와 사회에서의 평신도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제작되는 달력 438,000부의 대부분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쿠바 가톨릭교회는 종이와 인쇄, 발송에 드는 비용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쿠바의 문화가 공적 공간에서도 그리스도교 유산을 잃지 않도록, ACN은 약 4550만 원을 지원하여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맞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폴란도 호세 알바레스 라고스 주교



상점, 작업장, 시장, 병원,
어디서나 달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코로나19 피해 교회 돕기 긴급구호캠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에서 지난 3월 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바티칸도 타격을 입었으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미사가 중계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봉쇄된 지역의 형제자매들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235년만에 처음으로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모든 미사가 중단된 한국과 같이, 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못하는 대신 집에서 기도로 함께하며 일치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시기에 특히 “이웃, 가족, 친구를 향한 작은 행동과 작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텅 빈 로마 거리를 걸으며 산 마르첼로 알 코르소 성당에서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중동의 시리아나 이라크의 그리스도교회는 최근까지 내전과 갈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고, 이제 막 재건을 시작하며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여 가는 심지를 꺾지 않고(이사 42,3)” 보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피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살릴 것입니다.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합니다. ACN 국제 본부와 전 세계 23개국 지부는 어둠 속에서도 전해지는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통해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알아보기 www.churchinneed.or.kr/covid-19

지원하기 bit.ly/acn-covid-19

해외 코로나19 피해 교회 돕기 지원 사례, 레바논 성 요한 자비의 식탁

ACN은 레바논 자흐레의 무료 급식소 ‘성 요한 자비의 식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각종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성 요한 자비의 식탁은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400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따뜻한 식사를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포장 중인 봉사자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ACN 후원자에게 드리는 지부장 신부 강복

ACN 국제 본부와 한국지부는 어려운 시기에도, 전 세계 고통받는 그리스도인과 깊은 유대를 보여 주시는 한국 ACN 후원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가 후원자 여러분께 영상으로 강복을 드립니다.



영상링크 bit.ly/acn-korea



하느님 사랑과 자비!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용약하는 하늘나라 천사들의 우렁찬 구원의 나팔 소리와 찬란한 광채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의 찬양 노래가 예전과 다르게 나지막이 고요함 속에 묻어가는 주님 부활 시기입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인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지구촌의 안녕과 자유는 사람들 간의 서로를 지키는 사회적 거리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전통적으로 엄격한 단식과 함께 인간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모임을 자제한 채 영성체도 하지 않는 '무전례'(無典禮)의 날로 지내는 성(聖) 토요일을 한 달 넘게 지내온 듯 신자들은 사순 시기 내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절망 안에서 헤매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안녕을 물으십니다. 마치 당신 부활의 첫 목격 증인들인 무덤가의 여인들에게 건네셨듯 우리에게도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마태28,9)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듯 성찬의 전례로 부르시는 초대 말씀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요한21,12) 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완전히 종식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재개될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마련된 구원의 신비를 더욱 합당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그 옛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간절히 청해야만 합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루카24,29)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듯 우리에게 지금의 이 무서운 질병을 이겨내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24,46-47)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자명한 삶의 이치에 적당한 세속적 위안에 기대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신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모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우선 사명은 다른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으로 박해받는 이들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직접 도울 수 없는 우리의 빈손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성 어린 우리의 물질적 후원이야말로 실천하는 증인의 마무리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2,42)

날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동체 안의 물질적 친교를 이루며 미사에 참례하고 기도하며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 하였던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큰 은총으로 구원받을 이들이 보태어졌듯 지금의 우리 모두도 같은 희망을 품어 봅니다. 이러한 희망으로 우리가 함께 부를 ‘알렐루야’를 대신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곳에서 안심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아직은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알렐루야’를 노래합시다. ...주변의 편안함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곤궁 속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오늘 노래합시다. 곤궁 속에서 노래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짜증내지 맙시다. 노래하며 앞으로 걸어갑시다!”(성 아우구스티노)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